

나주시, '2025 영산강 멍멍파크 페스티벌'

유기견 입양 홍보, 반려견 미션 마라톤 등 운영

전라남도 나주시가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하는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영산강 멍멍파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10월 4일 영산강 반려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유기견 입양 활성화, 펫티켓 확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축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유기견 입양 홍보관과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해 입양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견 미션 마라톤(1.5km, 3km 코스), 반려견 패션위크, 멍멍 OX 퀴즈대회,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멍멍상담소', 체험존과 플라마켓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한다.

특히 펫티켓 교육, 동물등록제 안내 등 반려인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축제가 열리는 '영산강 반려견 플레이그라운드'는 나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1단계 인프라 사업으로 나주대교 하부 약 6600㎡(2000평) 규모에 조성한 반려견 전용 놀이터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앞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더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축제는 입양, 책임, 공존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



으며 단순한 행사를 넘어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를 나주에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영열 기자

고흥군, 고흥군립하늘공원 공정률 80% 달성

10월 1일부터 읍·면 사무소 및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안치 신청 접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이 공정률 80%를 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오는 10월부터 개원 준비의 일환으로 안치 사전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접수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고흥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안치 신청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안치 위치는 정식 개원 이후 실제 골분이 시설에 입고 되는 시점에 따라 순서대로 배정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고흥읍 호령리 산 16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다. 고흥군립하늘공원에는 봉안당, 자연장지(잔디형), 유족동산, 주차장 등 다양한 장사시설이 마련되며,

봉안당(16,160기), 자연장지(2,214기)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돼 군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과 그 직계 존·비속, 관내 분묘 개장자, 하늘공원에 직계 존·비속이 안치된 경우,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 외국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봉안당 개인당 80만 원(관외 160만 원), 부부당 160만 원(관외 320만 원), 자연장지 50만 원(관외 100만 원), 유족동산 산골 1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용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다. 무연 유골은 관내만 적용되며, 5년간 10만 원으로 관리

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공영민 군수는 "하늘공원이 단순히 유골을 안치하는 공간이 아니라, 군민이 추모와 후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전접수를 통해 개원과 동시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남은 공정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거리 이용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진도군은 신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현장 학습을 지난 18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 학습은 진도군의 중요한 행정시설과 문화유적을 포함해 지역산업 현장 등을 직접 탐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 학습의 주된 목적은 공무원들이 향후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실무적 안목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

진도군, 새내기 공무원 '우리 고장 바로 알기' 현장 학습

조직문화 적응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울돌목 진도타워 ▲유림산방 ▲솔비치 진도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행정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게 다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유림산방에서는 진도 출신 예술가들이 남긴 전통 예술의 흔적을 직접 보

고 느끼며, 문화적 소양을 넓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또한,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소통 역량 강화, 공지 가치 확립, 청렴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단순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업무

무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이번 현장 학습을 통해 새내기 공무원들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빠르게 공직사회에 적응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카메라 뉴스



영광군, 광주광역시청에서 귀농·귀촌 적극 홍보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9월 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남도풍경 사진전시회' 현장을 찾아 행사 방문객들에게 귀농·귀촌 상담과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영광군은 도시민의 농촌 정착 수요에 맞춘 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제도와 정착 절차를 담은 리플릿을 배부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생활 밀착형 「인구정책」, 계절별 대표 「상사화축제」, 기부 참여를 통해 지역을 돕는 「영광사랑 기부제」 등 군정 핵심 정책도 함께 홍보했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관계자는 "현장에서 상담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영광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상담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배추 정식' 교육 진행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7일, 체류형 귀농인의 집 입소 교육의 일환으로, 예비 귀농인들과 함께 귀농인의 집 영농실습장에서 입소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배추 정식' 교육을 진행하여 작물 재배 과정을 체험하고 영농 기술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농업회사법인 농바름 강행원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약 330㎡(100평) 규모의 노지 영농실습장에서 배추 파종과 정식, 관리 요령 등을 실습했다.

김산 군수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실습장을 함께 둘러보며 귀농인의 집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산 군수는 입소 교육생들에게 "도시민들이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무안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장흥군, 독감·코로나19 안전접종 위한 지역협의회 회의

장흥군은 오는 10월 15일 본격 시작되는 독감·코로나19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지역협의회 회의를 18일 군보건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2026절기 독감·코로나19 안전접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열렸다. 공공·위탁 의료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각 기관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예방접종사업 지침 변경사항, 개인정보 기록관리, 오접종 예방, 백신 관리와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상호 업무 협조 체계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사전 준비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